されるファイル地表調査報告書

201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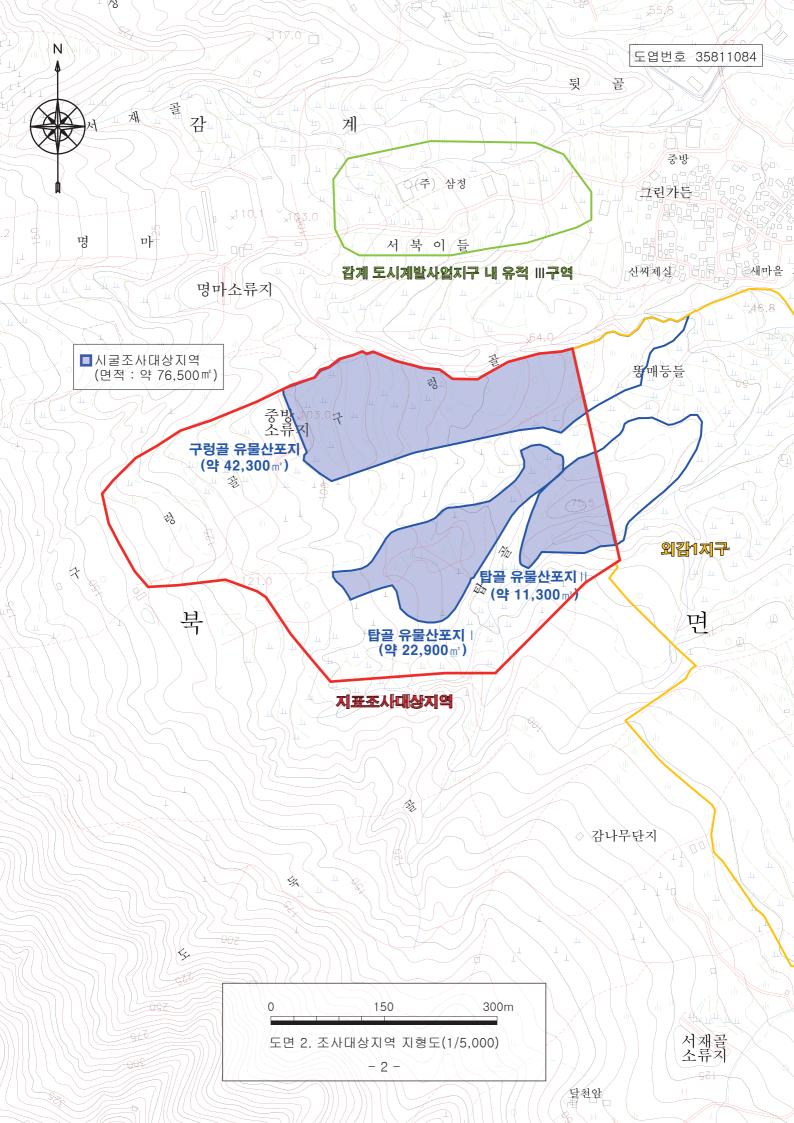
目 次

I. 조사개요	3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4
1. 창원시의 자연ㆍ지리적 환경	
2. 창원시의 역사적 배경	
 창원시 역사개요 창원시 역사관련 문헌자료 	
2) 경천가 크게린된 표현자표	
Ⅲ. 조사내용	10
1. 민속 및 지질・자연환경 분야	10
1) 민속과 문화행사	10
2) 지명전승	11
3) 자연환경	12
2. 고고・역사분야	12
1) 구령골구간	13
2) 탑골구간	14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6
1. 문화재 현황	16
1) 사업예정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16
2) 사업예정지역 문화재 현황	17
2. 종합고찰	17
참고문헌	19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20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21

圖面目次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dots\dots\dots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2
圖版目次	
	10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북동-남서)	
도판 2. 구렁골 유물산포지 동쪽 근경(서-동)	13
도판 3. 구렁골 유물산포지 동쪽 근경(동-서)	13
도판 4. 구렁골 유물산포지 근경(북동-남서)	14
도판 5. 구렁골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일괄	14
도판 6. 탑골 유물산포지 I 전경(북동-남서)	14
도판 7. 탑골 유물산포지 I 근경(동-서)	14
도판 8. 탑골 유물산포지Ⅱ 근경(북-남)	15
도판 9. 탑골 유물산포지Ⅱ 근경(북-남)	15
도판 10. 탑골 유물산포지 I 수습유물 일괄	15
도판 11. 탑골 유물산포지Ⅱ 수습유물 일괄	15
도판 12. 구렁골 유물산포지 서쪽 구릉 전경 (북-남)	15
도판 13. 지표조사 광경	15





I. 조사개요

1. 조사명

감계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주)한가람이엔씨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감계리 484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거해 사업지구 내 문화유적의 유존여부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표조사는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정문화재와 고문헌, 발굴조사 보고서와 각종 학술지 등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사업예정부지 전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였으며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GPS좌표를 비롯한 현장기록과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조사대상지역 및 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484번지 일원(약 206,360㎡)

4. 조사기간

2013년 2월 12일 ~ 2013년 2월 28일

·사전조사 : 3일 / 현장조사 : 2일 / 정리분석 : 2일 / 보고서 작성 : 6일

5.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책 임 조 사 원 : 김판석(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조 사 원 : 김정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준 조 사 원: 구형모(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현정(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6. 조사의뢰기관

㈜ 한가람이 엔씨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1. 창원시의 자연 · 지리적 환경

경상남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창원시는 북쪽으로 밀양시·창녕군, 동쪽으로 김해시, 서쪽으로 함안군과 각각 접한다. 전체적인 지형은 소백산맥이 남쪽으로 뻗어내려 남해안으로 이어지며 지리산의 여맥인 여항산, 거류산, 두척산을 거쳐 창원산맥을 형성한다. 북쪽으로 천주산, 동쪽으로 정병산과 불모산을 거쳐 남쪽은 장복산으로 연결되며 서쪽에 팔용산 등의 구릉성 산지로 둘러쌓여 있다. 이들 구릉은 500~800m의 고도를 가진 노년기 초기의 분지 지형을 이룬다. 구릉성 산지의 사면말단부에는 오랜 지질시대의 준평원화 작용으로 형성된 산록완사면이 발달해 있으며 산록완사면 아래에는 곳곳에 소규모의 선상지, 분지 내에는 100m 내외의 波浪狀 구릉이 곳곳에 분포한다.

창원시를 형성하는 지질은 중생대 신라통에 해당하는 진동층, 정병산층, 팔룡산응회암, 주산안산암과 불국사통에 해당하는 마산암이다. 창원시의 서북쪽과 동쪽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는 진동층의 일부는 화산산출이 없어 정확한 시대 대비는 어려우나 하양층군의 후기에 해당한다. 분지의 동쪽에서는 진동층의 퇴적과 동시에 주산안산암질암의 분출이 일어났으며 이후 불국사통 화성암이 관입되기 이전까지 화산활동이 계속되어 신라통의 마지막 시기에 팔룡산응회암이 퇴적되었다. 북쪽 분수계는 불국사통인 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북쪽에서도 진동층 퇴적과 동시에 주산안산암질암의 관입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지질분포를 통해 볼 때, 창원시의 분수계를 이루는 것은 북쪽을 제외하면 안산암, 변성퇴적암 및 접촉변성작용을 받은 안산암이다. 이들 중 변성작용을 받은 암석으로 된 남쪽과 동쪽의 분수계가 다른 쪽에 비해 산지고도가 높다. 반면 불국사화강암에 해당하는 마산암으로 이루어진 북쪽 분수계는 해발고도 300m 이하의 낮은 산지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창원지역의 하천을 살펴보면, 총 연장 18km에 이르는 남천이 용지봉과 불모산계 곡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에서 서남쪽으로 흘러 봉암하구에 이르는데, 비교적 경사가급하고 경상계 지층인 화강암의 유실이 심하여 이것이 하구에 퇴적되어 범람이 잦다. 남천의 수계로는 토월천, 가음정천, 대방천, 안민천, 상북천, 완암천 등의 작은 하천이 분포하고 있다. 내동천은 정병산과 용추골에서 발원하여 봉암하구에 이르며하구에서 범람이 잦다. 내동천 수계에는 초계천, 창원천, 용지천 등의 작은 하천이 있다.

창원시는 강수량에 비해 큰 하천이 부족하고 경사가 급하여 봉암하구에서는 범람이 잦고 넓은 평야지대에서는 용수가 부족하여 농업용수를 얻기 위한 소규모 저수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 옛날에는 남천으로 배가 운항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마산만과 접하는 해안은 침강해안이나 화강암 등의 토사가 퇴적되어

갯벌로 변하고 이것이 매립되어 육지화한 곳도 여러 군데 볼 수 있다.

창원시는 1995년에 이전 창원군의 3개 읍·면(동읍, 대산면, 북면)을 편입하여 전체면적 292.65㎢로 확장되었지만, 타 시·군에 비해 시역은 매우 좁은 편에 속하 였다. 1997년 대동제 시행 이후 1읍 2면 12동으로 행정개편 되었다가 2010년 7월 1일 인근의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하여 5개 구의 통합창원시로 새로이 출범하여 현 재 5구 2읍 6면 43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2. 창원시의 역사적 배경

- 1) 창원시 역사개요
 - (1) 선사시대~통일신라시대

창원 일대에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동읍의 합산패총1)과 진해 안골포패총2)이 있다.

이후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 지석묘·취락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창원분지 내를 비롯한 동읍, 북면 등 여러 곳에 지석묘가 분산되어 있는데, 그 형태는 주로 蓋石式과 基盤式이 많이 보인다.이 중 동읍 용잠 일대의 지석묘군은 그 규모가 대형이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덕천리유적3), 성산유적4), 반계동유적5)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호취락인 남산유적6)은 발굴조사된 유적 중 가장 시기가 빠른 편에 속한다.7) 이들 유적의 입지환경은 독립된구릉이나 구릉 말단부라는 공통점을 가진다.이는 앞선 시기의 유적에 비해 주거역이 하천에 연한 충적지에서 충적지를 바라보는 배후의 구릉으로 상향 이동되었다는입지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동기시대를 거쳐 삼한시대에 이르면 창원지역은 弁韓 12국 중의 하나로 비정되기도 한다.8) 이는 곧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 사람들이 집단 내지 군락을 형성하고 농경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여기서 생산·축적된 잉여생산물들은 원시·고대사회의 계급분화 및 권력형성, 나아가 소국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청동기~삼한시대까지의 구체적인 문헌

¹⁾ 창원대학교박물관, 『昌原郡文化遺蹟情密地表調査報告書』, 1994.

²⁾ 창원대학교박물관,『新港灣敷地 安骨一帶遺蹟 試掘調査報告』, 1994.

³⁾ 경남대학교박물관, 『昌原 德川里遺蹟』, 현장설명회 자료, 1993. 창원대학교박물관, 「德川里遺蹟」, 『昌原郡文化遺蹟情密地表調査報告書』, 1994.

⁴⁾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書』, 1976.

⁵⁾ 창원대학교박물관・韓國水資源公社,『昌原 盤溪洞遺蹟』 Ⅰ・Ⅱ, 2000.

⁶⁾ 창원대학교박물관, 『昌原 南山遺蹟』, 2004.

⁷⁾ 경남문화재연구원, 『昌原 聖住洞遺蹟』, 2003.

⁸⁾ 弁韓 12국의 위치 비정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昌原市史』(昌原市史編纂委員會, 1997)에 수록된 <표 2-1-1〉(p.218)에서는 辰韓과 弁韓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창원지역을 변한의 走漕馬國으로 비정하고 있다.

기록은 극히 희소하여『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와『後漢書』東夷傳에서만 단편적인 사실들을 알려 주고 있을 뿐이다. 먼저『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에는 경상남도 일원에 산재하였던 고대 변진 12국에 대한 명칭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後漢書』東夷傳에 "辰韓은 동쪽에 위치하고 12국이며 북으로 濊貊과 접하고 있다. 弁韓은 辰韓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며 남쪽은 倭와 더불어 접해 있으며 모두 78개국이다"의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창원시의 지리적 위치와 비교해 보면 변한 12국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에는 삼한시대의 사회생활에 관한 기록이나타나 있어 이를 통해 당시 사회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토지가비옥하여 농경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문화수준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한시대 사회체계는 부족공동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한에서는 대국이라도 1만호, 변한과 진한에서는 4~5천여 호에 불과하였다. 정치체계는 정치장[君長]과 제사장[天君]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제정이 분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원지역의 삼한시대 유적으로는 주거지, 분묘, 패총 등이 조사되었다. 이 시기취락의 입지는 보통 평지보다 약간 높은 구릉이나 사면부에 조성되는데, 생활 유적으로는 가음정 복합유적10), 외동유적11), 창곡동유적12) 등이 대표적이며 분묘유적으로는 다호리고분군13), 삼동동옹관묘14), 화천리유적15) 등을 들 수 있다. 다호리유적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모두 8차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한시대 초기의 수장층 무덤이 조사되었다. 그 중 다호리 1호분은 비록 도굴의 피해는 입었지만, 삼한사회의 주묘제인 토광목관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통나무로 만든 목관의 원형뿐만 아니라 청동거울, 철제, 목제 등의 다양한부장품이 출토된 1호분의 피장자는 창원시 동읍 일대를 기반으로 한 삼한시대 수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창원 일대에 강력한 정치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성산패총16), 가음정패총17) 등 대규모의 패총도 확인되는데, 이처럼 주거지와 패총이 많았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창원지역에 거주했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유적 이외에 문헌상에서 고대 창원지역의 국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三國史記』의 기록에서 주목되는 사실이 있는데, 고대 삼한시대에 경남 지역에서 전남지역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 집단인 '浦上八國'

^{9)『}後漢書』〈東夷傳〉.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韓 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¹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昌原 加音丁 複合遺蹟』上, 2009.

¹¹⁾ 경남문화재연구원, 『昌原 外洞遺蹟』, 2005.

¹²⁾ 경남문화재연구원, 『昌原 昌谷洞遺蹟』, 2001.

¹³⁾ 한국고고미술연구소, 『考古學誌』 10, 1999.

¹⁴⁾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昌原 三東洞甕棺墓』, 1984.

¹⁵⁾ 창원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창원시』, 2005.

¹⁶⁾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書』, 1976.

¹⁷⁾ 창원대학교박물관, 『昌原 加音丁洞遺蹟』, 2001.

에 대한 기록이다. 그 세력이 전 남해안까지 뻗쳤을 뿐만 아니라 가야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으며¹⁸⁾ 이를 통해 농경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내륙세력인가야, 신라와의 대립 및 포상팔국이 신라에 병합되어 쇠락하는 과정을 가늠할 수있게 한다. 특히 포상팔국과 가야, 신라의 대립양상은 신라 奈解尼師今 때의 竭火城전투¹⁹⁾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갈화성 전투 이후 포상팔국의 세력이 신라나 가야에 완전히 복속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 창원지역에 대한 언급은 문헌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면 창원지역은 景德王 16년(757)에 실시한 9州 5小京制의 행정구역개편 및 정비와 함께 屈自郡으로 편재되어 삽량주에 예속되었다. 당시 삽량주는 영속군현의 수에서 9주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지역으로 이후 양주로 개칭되었으며 이에 소속된 군은 굴자군을 비롯하여 12개 군이 있었다. 당시 굴자군에 소속된 현은 漆土縣, 骨浦縣, 熊只縣 3개였다.20) 그 후로는 별다른 행정개편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행정체제가 통일신라 전반 및 후삼국, 고려시대 초까지 오래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고려시대~근 · 현대

고려시대에 들어와 창원지역은 顯宗 9년(1018)에 전국을 4도호부 8목 56주군 28진으로 나누게 되면서 '義安郡'으로 개편되었으며 金州에 예속된 후 감무가 설치되었다. 이후 忠烈王 8년(1282)에 '義昌縣'으로 개칭되면서 縣令이 파견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太宗 8년(1408)에 지금의 '昌原'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당시 경상도는 전국의 8도 중 가장 통폐합이 많았던 곳 중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군현을 통폐합하는 과정이 복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의 '義昌'(지금의 창원지역)의 '昌'자와 '會原'(지금의 마산지역)의 '原'자를 합하여 '昌原'으로 개칭하고 府로 승격하였다. 이후 同 13년(1413)에 다시 도호부로 개칭하였으며 宣祖 34년(1601)에는 體察使 李元翼의 狀啓에 의하여 대도호부로 승격되어 판관이 과견되었다. 21) 창원군의 또 다른 지역의 하나인 진해현22)은 宣祖 34년(1601) 함안군에속했지만 光海君 9년(1617) 진해현을 설치하면서 독립하였고, 仁祖 5년(1627)에 창원에 합해졌다. 이후 仁祖 7년(1629) 다시 분리되어 함안군에 이속되었으나 同 17년(1639)에 재차 현으로 독립하였다. 顯宗 2년(1661)에 문묘의 전패가 유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한때 대도호부에서 격하되었으나 同 11년(1670)에 다시 승격되었

^{18) 『}三國史記』卷二〈新羅本紀〉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19) 『}三國史記』卷四十八〈列傳〉八 勿稽子條.

^{20) 『}三國史記』卷三十四〈雜誌〉三 地理一 義安郡條.

²¹⁾ 임진왜란 당시 관원이나 백성들이 시종 종군하였으며 왜군에게 투항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大都護府'로 승격시켰다고 한다.(『輿地圖書』<昌原大都護府〉建置沿革條)

²²⁾ 이 때의 진해현은 지금의 진해시가 아니고 마산시에 편입된 진동 · 진전 · 진북의 삼진지역을 말한다.

으며 이후 별다른 행정개편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는 군으로 행정개편 되었으며 인근 지역들과 여러 차례 개편과 편입을 거치면서 현재 창원시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高宗 32년(1895)에 23府制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인하여 종래의 창원대도호부는 진주부 관할 '昌原府'로 하고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이듬해인 高宗 建陽 元年(1896)에 다시도체제가 부활되면서 경상남도 창원군으로 행정개편 되어 7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23)이후 光武 3년(1899) 마산항의 개항에 따라 창원군이 '창원부'로 승격되었으며 光武 7년(1903)에는 창원부를 다시 '창원군'으로 하였다. 光武 10년(1906)에 창원군을 승격하여 '창원부'로 개칭하고 칠원군의 구산면, 김해의 대산면을 편입하였다. 1910년에 창원부를 '馬山府'로 고쳤으며 1914년의 행정구역 통ㆍ폐합 조치에의해 동면을 비롯한 15개 면이 창원군으로 분리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1973년 창원군의 창원, 상남, 웅남면이 마산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80년 마산시의 의창동을 편입하여 창원시가 신설되었으며 창원군의 나머지 지역은 의창군으로 바뀌었다. 1995년에 이르러 창원군의 일부지역(동면²⁴⁾·북면·대산면)을 묶어 도농통합형 창원시로 새롭게 개편되었으며 1997년에는 대동제의 실시에 따라 기존의 시 지역 24개 동을 12개 대동으로 통폐합하여 1읍 2면 12 동으로 되었다.

이후 2010년 7월 1일자로 인근의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하여 통합창원시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창원시는 넓은 시구역을 관할하기 위해 마산합 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의 5개 구를 설치하게 되어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반구 수가 4개로 가장 많았던 경기도 수원시를 제치고 일반구가 가장 많은 자치시가 되었다.

2) 창원시 역사관련 문헌자료

[표 1] 창원시 역사관련 문헌자료

	문헌	내용
史料 1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도 역시 12國으로 되어 있다. 또 작은 여러 別邑이 있는데 (이들 모두에는) 제각기 渠帥가 있다.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큰 곳은 그 우두머리를 '臣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險側', 다음에는 '樊濊', 다음에는 '殺奚',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 已柢國 不斯國… (中略)…弁韓과 辰韓은 도합 24국이 된다. 큰 나라는 4~5천 家, 작은 나라는 6~7백 家로 총 4~5만 戶이다(下略).25)
史料	『三國史記』卷34	義安郡은 원래 屈自郡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²³⁾ 昌原市史編纂委員會,『昌原市史』上, 1997.

²⁴⁾ 동면은 같은해(1995년) 3월 읍으로 승격하여 현재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속한다.

2	<雜誌>3 地理1 義安郡	그대로 부른다. 이 군에 속한 현은 셋이다. 漆隄縣은 원래 漆吐縣 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漆園縣이다. 合浦縣은 원래 骨浦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熊神縣은 원래 熊只縣이었는데 景德王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26)
史料	『三國遺事』卷3 〈塔像〉4 南白月二聖	白月山 두 성인의 成道記27)에 이르기를 백월산은 신라 仇史郡의 북쪽에 있는데, 옛날 신라의 屈自郡이요 지금의 義安郡이다. 산봉우리들이 기이하고 빼어나며 자리 잡은 넓이가 수 백리에 뻗쳐서 참으로 큰 鎭山이라 할 만하다(下略).28)
史料 4	『高麗史』卷57 <志>11 地理2	(上略)義安郡은 원래 신라 屈自郡인데 景德王이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顯宗 9년(1018)에 본 주에 소속시켰고, 후에 監務를 두었으며 忠烈王 8년(1282)에 元나라 世祖가 東征할 때 도와준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義昌으로 고쳐서 縣令으로 승격시켰다. 檜山이라고도 부른다(下略)29)
史料 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昌原都69府〉	동쪽으로 金海府 경계까지 23리이고 남쪽으로 熊川縣 경계까지 33리이다. 서쪽으로 咸安郡 경계까지 37리, 漆原縣 경계까지 33리, 북쪽으로 같은 현 경계까지 32리, 서울과의 거리는 844리이다. [郡名] 굴자・의안・의창・회산・골포・합포(合이 蛤으로 된 곳도 있다)・회원・환주. [土産] 철 : 佛母山에서 산출한다. [城郭] 읍성 : 石築이며 둘레가 4,920척이다. 우물 하나, 못 하나가 있다. [關防] 右道兵馬節度使營 : 옛 합포현에 있으며 부와의 거리는 13리이다. 석성이며 둘레는 4,291척, 높이는 15척이고, 營안에 우물 다섯이 있는데 裵克廉이 쌓은 것이다(下略) [烽燧] 城隍山烽燧 : 부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동쪽으로 웅천현 高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칠원현 安谷山에 응한다. 餘音浦烽燧 : 동쪽으로 웅천현 沙火郞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같은 현의 高山에 응한다(下略)30)
史料 6	『嶠南誌』卷71 〈昌原郡〉	[沿革] 義昌縣은 본래 신라의 屈自郡으로 景德王 때 義安으로 바뀌었다. 會元縣은 본래 신라의 骨浦縣이었는데 경덕왕 때 合浦로 바뀌었고 의안군에 예속되었다. 고려 顯宗 때 의안과 합포를 숲州(지금의 김해)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각각 감무를 설치하였다. 忠烈王 때 元 世祖의 동쪽 정벌시에 도와준 공로의 상으로써 의안을 의창으로 만들었으며 합포를 회원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현령으로 승격시켰다. 조선 太宗 때 두 현을 합해서 지금의 명칭으로고쳤으며 승격시켜 府로 만들었다가 후에 다시 都護府가 되었다… (中略)…宣祖 34년(1601) 관찰사 이원익의 장계에 의하여 승격하여 大都護府가 되어 판관이 설치되었다(下略)31)

^{25)『}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傳.

Ⅲ. 조사내용

1. 민속 및 지질·자연환경 분야

1) 민속과 문화행사

동제는 洞虞祭라고도 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승의식으로서 주로 마을의 무사태평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이며 마을의 전체주민이 함께 참례하는 합동의식이다. 창원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신제는 마을의노거수를 신격화하여 지내는 제사로 신방리의 엄나무에서 행해지는 목신제가 대표적이다. 당산제는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主山에 신당을 짓거나 노거수 아래의 신단에서 제사를 행하는 것인데, 이는 산신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된 것이다. 목동 느티나무 아래서 매년 정월에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입석제는 보통 동구 앞에 큰 돌을세워 놓고 그 돌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격상시킨 다음에 이를 신격화하여 지내는 제사였는데, 지금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장승제는 나무 또는 돌로 장승을 만들어 사원과 읍촌의 입구 또는 길을 안내하는 경계지점에 주로 세워둔다. 보통 정월보름에 행하여졌던 전승의식이나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다음으로 창원시에 전승되는 놀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文昌祭놀이'(도무형문화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柢國 不斯國… (中略)…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下略).

^{26) 『}三國史記』 卷三十四 〈雜誌〉三 地理一.

義安郡 本屈自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漆隄縣 本漆吐縣 景德王改名 今漆園縣 合浦縣 本骨浦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熊神縣 本熊只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²⁷⁾ 成道는 불교교리를 완전히 깨달았다는 의미이고 '成道記'는 그 전말을 쓴 기록이다.

^{28) 『}三國遺事』卷三〈塔像〉四「南白月二聖」.

白月山 兩聖成道記云 白月山在新羅仇史郡之北 古之屈自郡 今義安郡 峯轡奇秀 延亥數百里 眞巨鎮也……(下略).

^{29)『}高麗史』卷五十七〈志〉第十一 地理二.

⁽上略)······義安郡 本新羅屈自郡 景德王改今名 顯宗九年來屬 後置監務 忠烈王八年 更名義昌 陞爲縣令 以賞元世祖東征供億之勞 別號檜山·····(下略).

^{30)『}新增東國輿地勝覽』卷三十二〈昌原都護府〉.

昌原都護府: 東至金海府界二十三里 南至熊川縣界三十三里 西至咸安郡界三十七里 至漆原縣界三十三里 北至同縣界三十二里 距京都八百四十四里.

[[]郡名] 屈自 義安 義昌 檜山 骨浦 合浦(合作蛤) 會原 還珠.

[[]土産] 鐵:出佛母山.

[[]城郭] 邑城: 石築周四千九百二十尺 內有一井一池.

[[]關防] 右道兵馬節度使營: 在古合浦縣 距府十三里 石城周四千二百九十一尺 高十五尺 內有五井 裵克廉築…… (下略)

[[]烽燧] 城隍山烽燧: 在府西十五里 東應熊川縣高山 北應漆原縣安谷山. 餘音浦烽燧: 東應熊川縣沙火郞山 北應同縣高山……(下略).

^{31) 『}嶠南誌』卷71 <昌原郡>.

[[]沿革] 義昌縣 本新羅屈自郡 景德王改義安 會元縣 本新羅骨浦縣 景德王改合浦 屬義安郡 高麗顯宗 以義安合浦 俱屬金州 後各置監務 忠烈王 以賞元世祖東征供億之勞 改義安爲義昌 合浦爲會原 幷陞縣令 李朝太宗 合二縣 改 今名陞爲府 後改都護府…(中略)…(宣祖)三十四年 因觀察使李元翼狀啓 陞爲大都護府又設判官……(下略).

재 제5호)가 있다. 이 놀이는 조선 仁祖 14년(1636) 병자호란 때 순절한 黃是憲公의 제향과 그를 추모하기 위해 시작한 데서 유래하였다. 문창제놀이는 예능을 주로하는 놀이라기보다 충신을 기리는 추모의 내용으로 추도무와 군노놀이는 제향의 뜻에 부합되고 있다. 그리고 '창원 오광대놀이'가 최근 복원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 외에 전통문화가 행사로 승화된 '冶鐵祭'를 비롯한 '비음산 철쭉축제'와 '천주산 진달래 축제', '창원민속투우대회' 등의 문화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창원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는 북면 화천리의 달집태우기, 땅따먹기, 제기차기, 꽃놀이, 건치치기(나무로 못치기), 팽이치기 등이 전승되고 있다.

2) 지명전승

창원시 북면은 본래 창원군에 속해있던 지역으로 芝介, 高岩, 月山, 垈山, 南柏, 內甘, 鑑湖, 外甘 등 24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0년에 마산부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면 북계리, 본포리의 일부를 합쳐 지개, 고암, 월백, 대산, 월촌, 화천, 외감, 동전, 감계, 무동, 무곡, 내곡, 상천, 외산, 하천, 신촌, 마산, 북계의 18개리로 개편되어 창원군 북면이라고 하였다. 1959년에 화천출장소를 설치하여 관할하다, 1980년에 의창군에 편입되었다. 1991년에 의창군이 창원군으로 개칭되었고, 1995년에는 창원군과 창원시가 통합되어 창원시에 속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인 감계리는 본래 창원군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감호' 또는 '감계'라고 하였다. 1910년에 마산부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내감리, 외감리 일부를 병합하여 감계리라고 하여 의창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1991년에 의창군이 창원군으로 개칭됨에 따라 창원군에 속해있다가, 1995년 창원군과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창원시 북면 감계리가 되었으며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면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가 되었다.

이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 중 먼저 마을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이곳의 지명에서 유래한 '鑑溪'마을을 비롯하여 '內甘', '中方', '돌장승' 등이 있다. '내감'마을은 감계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중방'마을은 감계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름 붙여졌다. '돌장승'마을은 중방마을 동북쪽에 위치하는데, 마을에 돌장승이 있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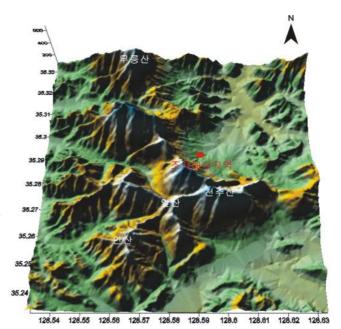
다음으로 고개, 골짜기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중방마을에서 칠북리로 넘어가는 곳에 '배나무고개'가 있으며 내감마을에서 함안군 칠곡면 무기리로 넘어가는 곳에 '소목고개'가 위치해 있다. 내감 북쪽의 조롱재산 아래쪽에는 '고수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으며 중방마을 뒤쪽에는 '뒷골', 진등 북쪽에는 '새상골'이 각각 위치해 있다. 내감 서쪽에는 '절달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는데, 예전에 이곳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들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내감마을 앞에 '말랑들'이 있는데, 지대가 높아 가뭄을

잘 탄다고 전해진다. 말랑들 밑에는 '샛바끌'이라 불리는 들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지명들이 전승되고 있다.

3) 자연환경

창원시 북부에 위치하고 있 는 북면은 동쪽으로 동읍, 서쪽 으로 함안군, 남쪽으로 소계동, 동정동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낙동강을 건너 창녕군과 마주 한다. 지리적으로 서쪽에는 무 릉산(해발 568m), 남서쪽에는 천주산(해발 638m), 남동쪽에 는 구룡산이 위치해 있다. 동쪽 으로는 백월산(해발 428m) 자 락이 남북방향으로 발달해 있 고 동서 산지 사이로 신천천이 북면의 북부지역을 지나 낙동 강으로 흘러들어 평야를 형성 하고 있다. 이 신천천은 낙동강 강변 농업지역의 주요 하천으



도면 3. 조사대상지역의 광역지형도

로 기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개천, 무곡천, 북천천, 월촌천 등이 있다.

조사대상지역인 감계리 일원은 천주산(656m), 무릉산(567m) 으로 이어지는 능선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천주산의 동쪽 사면부는 풍화에 상대적으로 약한 암질로서 붕적되어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2. 고고・역사 분야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484번지 일원(약 206,360 m²)으로서 작대산(해발 649m)의 남동쪽 사면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지역 북동쪽으로는 중방마을과 내감마을이 위치한다. 조사대상지역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구릉 말단부로 현재 계단식 밭과 과수경작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관목이 빽빽이 우거져있는 상태였다. 전체적인 지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면서 점차 낮아지면서 구렁골과 탑골의 가지능선으로 분기되다 똥매등들로 합쳐지며 능선 사이로는 곡간부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고 자연암반이 노두되어 있다.

지표조사는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북쪽의 구렁골과 남쪽의 탑골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상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원경(북동-남서)

1) 구렁골구간

구렁골은 지표조사대상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는 구간으로서 서→동으로 낮아지다 추후 보고예정인 외감1지구의 똥매등들에서 탑골과 합류하며 중앙부에 조성된 중방소류지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계단식 과수원, 동쪽에는 계단식 논・밭과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쪽의 탑골과 사이의 곡간부에 계단식 논・밭과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북동쪽에 연접하는 서북이들에는 2010년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시기미상의 수혈 3기가 감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Ⅲ구역에 분포한다.

지표조사 결과, 중방소류지와 연접하는 동쪽 구릉에서 똥매등들 앞까지 형성된 구릉 상부에서 분청사기편과 백자편이 수습되어 구렁골 유물산포지로 명명하였다. 구렁골 유물산포지는 동쪽 조사경계 밖의 외감1지구까지 연장되며 그 외 중방소류 지 서쪽의 구릉상부는 원지형의 훼손이 심하여 유구 및 유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한편 구렁골 유물산포지에는 최근에 조성된 분묘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개발사업 이전에 반드시 이장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판 2. 구렁골 유물산포지 동쪽 근경(서-동) 도판 3. 구렁골 유물산포지 동쪽 근경(동-서)





도판 4. 구렁골 유물산포지 근경(북동-남서) 도판 5. 구렁골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일괄

2) 탑골구간

조사대상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는 탑골 역시 대부분 계단식 논・밭과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었으며 최근에 조성된 분묘 수십 기가 곳곳에 산재한다.

탑골의 서쪽 구릉은 서→동으로 저평한 지형조건을 보이며 계단식 과수워의 절토 면 및 밭에서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등이 다량 수습되어 탑골 유물산포지 [로 명명 하였다. 또한 탑골 유물산포지 I 의 동쪽에 위치하는 해발 75.5m의 독립구릉 주변 에서 소량의 백자편이 수습되어 탑골 유물산포지Ⅱ로 명명하였다. 탑골 유물산포지 Ⅱ는 동쪽 조사경계 밖의 외감1지구의 똥매등들 앞까지 연장되며 구렁골 유물산포 지와 동일한 조선시대 생활·분묘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탑골유물산포지 I · Ⅱ 구간 역시 최근에 조성된 분묘 수기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개발사업 이전에 반드시 이장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탑골 유물산포지 I 의 서쪽과 남쪽은 곡간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구렁골 유 물산포지 사이의 곡간부 역시 계단식 밭과 수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집중호우시 범 람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을 보이고 있어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적 합한 환경으로 판단된다.



도판 6. 탑골 유물산포지ㅣ 전경(북동-남서) 도판 7. 탑골 유물산포지ㅣ 근경(동-서)





도판 8. 탑골 유물산포지Ⅱ 근경(북-남)



도판 9. 탑골 유물산포지Ⅱ 근경(북-남)



도판 10. 탑골 유물산포지ㅣ 수습유물 일괄 도판 11. 탑골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일괄





도판 12. 구렁골 유물산포지 서쪽 구릉 전경 (북-남)



도판 13. 지표조사 광경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 문화재 현황

1) 사업예정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표 2] 사업예정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연 번	유적명	소재지	성격	문화재 지정여부	조사 기관 의견	이격거리
1	무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적	북면 무동리 381번지 일원	조선시대 생활·분묘유적		영	약 2.3㎞ (동서문물연구원, 2009년 시굴)
2	동전리 고분군	북면 동전리 산31-4, 산32, 산342번지 일대	산31-4, 산32, 삼국시내 명향 부묘으전 연음			약 2.7km
3	도시계획도로 3-33호선 건설구간 내 유적	동전리고분군 일대	삼국 · 조선시대 분묘유적		향 아 장 자	약 2.5㎞ (동서문물연구원, 2011년 발굴)
4	동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적	북면 동전리 146번지 일대	삼국〜조선시대 생활・분묘유적		향 이 장 없	약 2.3km (동서문물연구원, 2008·2010년 시·발굴)
5	화천리 유물산포지	북면 화천리 687-2·4, 688, 691, 702, 706, 715, 756-2번지 일대	삼국시대 생활유적	·	향 이미 명	약 2.3km
6	화천리 고분군	북면 화천리 산5, 산8, 산10, 산12, 743번지 일대	삼국시대 분묘유적		영	약 2km
7	화천리성지	창북면 화천리 845〜848, 850, 864번지 일대	삼국시대 관방유적			약 1.8km
8	감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적 I · II 구역	북면 감계리 87번지 일대	청동기 〜조선시대 생활유적 없음		약 850m (동서문물연구원, 2007〜2008년 시굴, 2009〜2010년 발굴)	
9	감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적 Ⅲ구역	북면 감계리 848번지 일대	조선시대 생활유적		영 (전)	약 143m (동서문물연구원 2009~2010년 발굴)

10	외감리 고분군 I	북면 외감리 156, 257번지 일대	삼국시대 분묘유적	•	흥 영 없	약 1.3km
11	외감리 고분군॥	북면 외감리 341, 347, 350-1, 362번지 일대	삼국시대 분묘유적		향 영 없	약 800m
12	달천구천	북면 외감리 868번지	조선시대 우물	도기념물 제32호	영향 없음	약 357m
13	외감리 지석묘	북면 외감리 468-1번지	청동기시대 분묘유적	•	영양 없음	약 1.2km
14	동정동 유물산포지 I	동정동 산30-9, 143-1, 210-2, 217-3번지 일대	조선시대 생활유적	•	영 양 없음	약 3.6km
15	동정동 유물산포지 II	동정동 산35, 산51, 380-1, 486, 813번지 일대	삼국·조선시대 생활유적		향 이미 정 정화	약 3.5km

2) 사업예정지역 문화재 현황

[표 3] 사업예정지역 문화재 현황

유적 번호	유적이름	행정구역 (주소)	면적(㎡)	유적성격	조사기관 의견	비고		
1	구렁골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약 42,300			외감1지구 약 8,900㎡ 제외면적		
2	탑골 유물산포지 I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484번지 일원	약 22,900	조선시대 생활·분묘 유적	시굴조사			
3	탑골 유물산포지॥		약 11,300			외감1지구 약 12,900㎡ 제외면적		
À	유물산포지 3개소	약 76,500㎡ 시굴조사 필요						

2. 종합고찰

이상으로 ㈜한가람이엔씨에서 의뢰한 감계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문헌적·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지표조사는 육안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484번지 일원(약 206,360㎡)으로서 지표조사는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구렁골과 탑골로 구분한 후, 사업예정지와 그 주변지역까지 도보로 정밀하게 조사하였다.
- 2. 조사대상지역은 작대산의 남동쪽 사면부로서 현재 대부분 계단식 논·밭과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지표조사 결과, 북쪽의 구렁골 유물산포지 중앙부의 중방소류지를 기점으로 동쪽의 똥매등들 앞의 과수원 절토면 및 밭에서 14~15세기로편년되는 분청사기편과 백자편이 수습되었으며 남쪽의 탑골구간에서도 동시기의 분청사기편과 백자편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지역의 북쪽으로 약 143m 이격되어 시기미상의 수혈 3기가 조사된 감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Ⅲ구역, 북서쪽으로 약 850m 이격되어 청동기~조선시대 생활유적이 조사된 감계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I·Ⅱ구역이 분포하며 동쪽의 추후 보고 예정인 외감1지구 지표조사대상지역 내에는 조선 숙종때 허목선생이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 우물인 달천구천(도기념물 제32호) 등이 복원되어 있어 금번 지표조사대상지역에 조선시대의 생활・분묘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이상을 종합할 때, 금번 지표조사대상지역 중 유물이 다량 수습되었고, 저평한 지형조건을 보이는 구렁골 유물산포지, 탑골 유물산포지 I 과 독립구릉인 탑골 유물산포지 II의 약 76,500㎡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분포범위 및 성격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구렁골 유물산포지와 탑골 유물산포지Ⅱ는 동쪽 조사경계밖의 외감1지구로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4. 그 외 조사대상지역의 서쪽 구릉 및 구렁골과 탑골의 곡간부는 지형조건상 유적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을 보이며 유구 및 유물 등 인간활동과 관련된 징후는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예정된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조사대상지역에 산재하는 수십 기의 현대 분묘는 공사시행 전 반드시 이장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금회 사업대상지역과 달리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계획된 공사 시행 중에 지표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은 문화재가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 적법한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志』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嶠南誌』
경남대학교박물관,『昌原 德川里遺蹟』, 현장설명회 자료, 1993.
경남문화재연구원, 『昌原 聖住洞遺蹟』, 2003.
————, 『昌原 外洞遺蹟』, 2005.
————, 『昌原 昌谷洞遺蹟』, 2001.
金享坤・金始煥,『新港灣敷地 安骨一帶遺蹟 試掘調査報告』,창원대학교박물관, 199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昌原 加音丁 複合遺蹟』上, 2009.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書』, 1976.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昌原 三東洞甕棺墓』, 1984.
창원대학교박물관, 『昌原 加音丁洞 遺蹟』, 2001.
,『昌原 南山遺蹟 報告書』, 2004.
,『昌原 南山遺蹟 試掘調查報告書』, 1996
, 『昌原郡文化遺蹟情密地表調査報告書』,창원대학교박물관, 1994.
창원대학교박물관·韓國水資源公社,『昌原 盤溪洞遺蹟』 I · Ⅱ, 2000.
昌原市史編纂委員會,『昌原市史』, 1997.
한국고고미술연구소, 『考古學誌』10, 1999.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10-경남・부산편』, 2003.
동서문물연구원,「창원 감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07.
, 「창원 동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08.
, 「창원 무동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09.
, 「창원 도시계획도로 3-33호선 건설구간 내 유적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2011.
, 「창원 감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2.

			문화재	지표조	 나 결	과서					
사	사 업 명		개발제한구역 의한 문화자			사	업기간				
업	사업지역		당원시 의창구			484년	<u></u> 번지 일원				
내 용	면 적	전체사업면 지표조사면	적	약 206,3 약 206,3	360 m²		업목적		발겨	예획 수	립
	사업시행자	기관명		가람이엔/		6	년 락 처	051) 520-4056			
		,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김판석 조사원 이하 구형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김판석 조사원 이하 이현								형모
	조사기관					긷	l판석			01	현정
	エハハこ	수중분야			C사원			조사원 0	하		
지표		고건축분0	ŧ		C사원			조사원 0	하		
조사		자연문화자	H	책임2	C사원			조사원 0	하		
1 - / //	조사기간	2013년 2월	12일 ~ 201	3년 2월	28일						
	- 보시기진	사전조사 :	3일/ 현장조	사 : 2일/	정리	분석	: 2일/	보고서 작	성 :	6일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고고·역사 분야	3,300,000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건축 분야	원
		지정문화재			달천구	천(5	E기념물	제32호)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비지정 문화재									?적, 화천 ·사업지구
조사	사업투 문화재 :	조사결과	■유적 있	음 🗆	유적 없						
결과	지상문화재	기존 신규		없음 없음							
	매장문화재	기존					없음				
	매성도와세	신규					있음				
	건축물	기존					없음				
	신독골	신규					없음				
	민속자료	기존					없음				
	친독자표	신규					없음				
	조사기관 종합의견	지표조사 를 물산포지, 팀 대해 조선시 라서, 시굴조 른 문화재 토 그 외 조사 적이 형성되 는 조사되지 여도 무방할 분묘는 공사 역과 달리 / 되지 않은 등	 불과, 유물이 	지 과 ⁵ 묘유적이 여 유적 ⁵ 및 공사 서쪽 구흥 난경을 보 ⁶ 제반 행 로된다. C 로시 이장: 변경되거 !될 때에는	특립구통 유존함 비 분포 비 이 및 이 어 된 이 어 이 어 된 이 어 이 는 이 지 하는 이 지 지 다 는 이 지 다 다 다 지 다 다 다 지 다 다 다 다	름인 할 기 [범우 여부분 구 글 자 드 호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저평한 기 탑골 유 남동성이 니 및 성무 및 판단하 골과 탑동 및 유물 자상지어야 자상되어야 공사 사를	물산포지 I 높을 것으 격을 규명한 해야 할 것 필의 곡간학 된 후, 예정 된 후, 예정 한 것이 C 나행 중에 나중단하고	I의 로 하고 르 라는 를 된 병된 : : : : : : : : : : : : : : : : : : :	약 76 추정되 , 그 를 지형을 지형을 과 관련 공사를 수십 기 당소사를	5,500㎡에 었다. 따결과에 따 된다. 조건상 유 본된 시행하 기의 현대 임대상지 메서 파악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기관명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주) (주) (조사의견 (조사의견 (조사의견 (조사의견 (조사의견 (조사의견 (조사의견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					조사의견	11)		
① 연번	② 문화재명	③소재지	(m²)	⑤시대	⑤시대 종류		신 규	8 의견 구분	⑨조사 면적(㎡)	⑩사유	비 고
1	구렁골 유물산포지		약 42,300㎡						약 42,300㎡		
2	탑골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484번지 일원	약 22,900㎡	조선 시대	생활 • 분묘 유적	죠 이미	있 음	시굴 조사	약 22,900㎡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원지형의 일부분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나 조선시대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어 조선시대의 생활・분묘 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음.	
3	탑골 유물산포지 II		약 11,300㎡						약 11,300㎡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地表調查 報告書 第128輯

お別ステ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문화재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13년 2월 27일 발 행 일 / 2013년 2월 28일

編輯‧發行 / 點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630-81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4길 48 동문빌딩

TEL: (055) 265-9150~2 FAX: (055) 265-9154

E-mail: feaci03@hanmail.net

인쇄처/부광사

641-8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483번길 37-15

TEL: (055) 285-1834